

일본기업의 경쟁력_광역 FTA 체결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

* 이 자료는 무쿠노키 히로시(椋寛) 일본 가쿠슈인(学習院)대학 교수가 「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: 일본기업의 국제 경쟁력·세계 FTA 확대 역풍에 '14.6.30)」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특정 국가들로만 FTA가 확대되는 경우, 일본의 수출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상대적 변화와 원산지 규칙 등 상대적인 무역장벽의 변화를 통해서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
-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은 중간재의 수출상대국뿐 아니라 그 중간재를 사용한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국가까지 포함한 광역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음

□ 일본의 구조적인 수출경쟁력 약화

- 최근 엔저경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한마디로 일본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
- 그 요인 중 하나로서, 여타국들의 FTA 확대에 따른 일본의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들 수 있음
- 특정 국가들 사이에서만 FTA가 확대되는 경우, 일본의 수출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상대적 변화와 원산지 규칙 등 상대적인 무역장벽의 변화를 통해서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

□ 관세율의 상대적 변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

- 여타 국가들 간 FTA는 일본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
 - WTO가맹국들이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차별적인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함
 - 그러나 일본의 수출상대국이 일본 이외의 나라와 FTA를 체결한 경우, 일본기업들이 직면하는 표면상의 관세율은 변하지 않더라도 관세율의 상승과 다름없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

- UNCTAD의 연구에 의하면, FTA 등 특혜적인 무역자유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관세율 변화에 의한 효과와 상대적인 관세율 변화에 의한 효과로 분해됨
 - 2000~2009년 기간 중 일본이 11개국·지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수출에 부과된 외국의 관세율은 절대적으로 저하
 - 이에 따라 2009년 일본의 수출은 FTA가 체결되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하여 수출이 0.72% 증가
- 그러나 여타국들은 일본을 상회하는 속도와 범위로 FTA를 체결하는가 하면, EU는 관세동맹을 확대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여타국들의 수출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일본 이상으로 인하됨
-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여타 FTA 체결국가들보다 높아져, 2009년 수출을 0.94% (약 5,100억엔)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
 - 그 결과, 일본도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, 세계적인 FTA확대로 일본의 수출이 0.22% 감소
- 이와같은 경향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FTA 체결이 늦은 중국과 한국,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볼 수 있음
- 한편, 미국은 상대적으로 관세율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(-0.01%), 절대적인 관세율 인하효과가 그대로 수출증가로 이어지고 있음
- 이 시기에 EU와의 FTA를 포함, 다수의 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칠레는 상대적인 관세율도 낮아져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, 독일과 영국 등 EU국가들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보여 지고 있음

□ FTA 체결경쟁에 뒤쳐질수록 상대적인 무역장벽은 높아져

- 현재, 연간 20개가 넘는 특혜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는데, 미국·EU간에는 초대형 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파트너십(TTIP: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)교섭도 시작되고 있음
- FTA 체결 경쟁에 늦게 참여할수록 일본의 수출상품이 직면하는 상대적인 무역장벽은 점점 높아질 것임

- 반덤핑관세에 대해서도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표적이 되기 쉽다는 데이터가 WTO에 의해 보고되고 있음.
- 따라서 수출상품에 대한 상대적인 무역장벽을 회피하는데 있어서도 FTA체결은 매우 유효한 수단임

□ 원산지 규칙에 의한 중간재 수출의 감소효과

- 나아가 여타국들끼리의 FTA는 이들 국가에 부품이나 원재료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
- OECD는 각국의 수출총액 중 다른 나라의 수출에 사용되는 중간재나 서비스 수출액의 비율을 산출했는데, 일본은 33%(2009)로 여타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임
- 즉, 일본의 수출에는 외국의 수출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원재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
- 일본의 중간재 수출상대국이 여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, 그 나라의 수출이 증가하여 일본의 중간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편, FTA체결에 수반되는 원산지규칙에 의해 일본의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음
- 원산지 규칙은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조건으로, FTA의 역내 부품 사용 등을 통하여 역내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리거나 가공공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음
- 수출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많이 사용해버리면 원산지규칙에 위반, FTA의 특혜관세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본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됨
- 결국 여타국들끼리의 FTA 체결은 절대적으로는 중간재 수요를 높이지만, 원산지 규칙으로 말미암아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는 감소됨
- 여타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와 일본이 개별적으로 2국간 FTA를 체결하더라도, 여타 FTA의 원산지규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음

□ 광역 FTA 체결의 필요성

- 위와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은, 중간재의 수출상대국뿐 아니라 그 중간재를 사용한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국가까지 포함한 광역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음
- 광역 FTA에서는 어느 특정 가맹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라 하더라도, 하나로 통 털어 역내 산으로 인정하여 계산하는 누적적인 원산지규칙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음
 - 이 경우 각국이 일본산 중간재를 투입하여 수출상품을 제조하는데 장애가 없어져, 여타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일본의 중간재 수출도 연동적으로 증가하게 됨
 - 이러한 의미에서 TPP나 RCEP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: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)의 교섭촉진이 중요
- 물론, 여타국의 FTA체결에 의한 상대적인 관세율 상승이나 일본산 중간재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 감소가 일본 수출부진의 최대 요인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음
- 그러나 엔저나 외수의 확대 등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 일본의 수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, 발목을 잡고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나 원산지규칙상의 수출저해 요인이 해소되어야 함
- 자유무역의 쟁탈전이라고 해야 할 만큼, 각국의 FTA체결 경쟁은 무역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세계경제에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음
- 그렇다 하더라도 WTO의 다자간 무역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 이상, 일본은 차선책으로서 광역 FTA를 가속시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직면하는 상대적인 무역장벽을 낮추어야 함 